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선교회 :** 오늘 오후(1:30)에 선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한 해 살림을 정리 (재무정리)하고, 신년도 임원을 선출해 사무실에 보고해 주세요.

**찬양의 가을걷이 :** 찬양대가 주관하는 찬양의 가을걷이가 다음 주일(22일) 오후 1:30에 열립니다.

**환경세미나 :** 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세미나가 29일 오후 1:30에 열립니다. 주제는 <에너지 이야기>입니다. 세미나를 위해 생활 속의 에너지 절약 실천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실내적정온도 유지, 빈 공간 전등 끄기, 에코마일리지 가입 등) 환경부 담당자(010-5489-3255)에게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속회 신청 :** 내년부터 새롭게 속회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1층 로비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 :** 홍천 친환경 절임배추 주문 예약 받습니다. 10kg에 21,000원이며 28일에 배송됩니다.

1부	삼하 23:1-7 / 시 132	2부	출 15:19-21
예배	계 1:4b-8 / 요 18:33-37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이순정 오복순 원인혜 박안수 이윤석 이은미 장동훈 이광욱  
 다음 주 식당봉사 : 김금순 이은정 서수진 이수정 유금주 신미라 최영혜 김기성  
 오늘설거지봉사 : 3여선교회(56-60세)  
 다음주설거지봉사 : 4여선교회(51-55세)  
 커피 판매 봉사 : 5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 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25주 】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2. 만유의 주재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단 위에 밝혀진 촛불처럼 날로 어두워지는 이 시대와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사회 곳곳에 드리워진 혼돈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한 깊은 절망의 어둠도 몰아내주십시오.

주님, 무정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쉽게 외면하는 이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이를 도울 때 우리의 인간됨이 회복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렘31:13,14 ..... 인도자  
 ♣ 교 독 문 ..... 74. 마태복음 5장 ..... 다 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대표기도 ..... 장영숙전도사  
 응답송 ..... 찬양대  
 찬 양 ..... 304.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다 함께  
 ♣ 성경봉독 ..... I. 삼상1:4-20 히10:11-25 막13:1-8 ..... 이용현 선생  
 II. 요일 2:1-6 ..... 유상진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 다 함께  
 찬 양 ..... 나의 믿음 약할 때 ..... 찬양대  
 말 씀 ..... I. 들으시고 이루시고 ..... 이범석 목사  
 II. 하나님을 안다는 것 .....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 다 함께

##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곽상준 최경미 권혁순 박혜경 김애순 김영아 김용길 최영혜 김종락  
 박영신 김희진 박홍재 마유경 마은겸 문복순 박기영 박명제 서미경 박미연  
 박예림 박종철 임옥기 서수진 송형운 하미림 심영희 양상철 박재란 우순덕  
 원용일 최현선 윤순우 윤영미 이광석 이경희 이미희 이상준 이윤석 박안수  
 이승석 이은경 이한림 김명희 이현죽 장병준 박소현 장영숙 정선희 정영례  
 정재기 정현모 조관행 홍선희 조병무 송양진 주은경 최옥자 최재욱 이수정  
 최철수 곽권희 한상균 한성건 정지혜 황현성 이오복 무명2

### 감사헌금

강금분 강신철 이해경 강형숙 권미숙 권혁래 김종락 박영신 김태정 문금석  
 박상욱 임서영 배삼순 신영희 오형일 이경준 오진희 이광재 이은혜 이자애  
 임승동 백혜숙 임창선 장다운 최영준 조병무 송양진 조순덕 조호진 최금순  
 홍성식 이유리 나오미1선교회 나오미선교회 무명9

### 녹색꿈헌금

김호연 신영희 이현죽 임설희 무명5

### 생일감사헌금

이현정 이미휘 류정욱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백혜숙	박성희	오유경	오송정
안디옥	신진식	최경미	이은욱	정복순
가나안	장영숙	신영신	김명순	장미경
베다니	박홍재	박홍재	조영순	김윤수
시온	권미숙	박미영	허정윤	배삼순
에베소	김금순	김금순	강순배	신영희
빌립보	곽권희	윤수진	이정은	윤수진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이수정	김명희
나사렛	김경혜	홍춘숙	김희우	송양진
다메섹	박혜경	박혜경	박혜경	이기분
두란노1	김재흥	오자영		
두란노2	김재흥	송형운		
두란노3	이범석	이진영		
두란노4	이범석	곽상준		
두란노5	신진식	이오복		

##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웅졸하게 분개하고 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웅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  
 그러니까 이렇게 웅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나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나  
 정말 얼마큼 작으나…

- 김수영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458.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요, 그 마음 알기에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신 진리와 순종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다 함께:	아멘.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교만한 자세를 고집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b>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b>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저녁성경연구 / 강의: 신진식전도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신진식 전도사	공동기도	최다미 선생
	김기석 목사	하현철 장로	김승현 집사

11월	영접위원	김정민 권혁순 정현모 이혜령 유경순 박경원
	헌금위원	한완식 김경혜

## 서로를 보듬어가면서

두 해 전 여름, 후배 성수선 작가가 바쁜 직장 생활 와중에 머리에 서 김을 뺀다고 올레길을 걸으러 왔길래, 휴식의 섬 가파도로 데려갔다. 내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해녀 몇몇이 ‘해녀의 집’으로 마실을 왔다. ‘블루코너’의 여주인 영남씨도 빠지지 않았다. 영남씨에게 수선이 물었다. “최고 상군이라고 하던데 처음부터 물질을 그렇게 잘하셨나요?”

“나는 원래 해녀가 아니었어요. 이 마을에 시집 와보니 다들 해녀를 하길래 나도 시작했지요. 스물다섯 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물질을 시작했어요. 처음 물질을 시작했을 때 죽을힘을 다해 열심히 했는데 고작 잡은 건 작은 오분자기 두 개였어요. 텅 빈 망사리를 메고 잔뜩 기가 죽어서 나왔죠. 근데 고참 해녀들이 제게 자기가 잡은 걸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렇게 다들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오늘날 이렇게 큰 잠수부가 될 수 있었죠.”

아, 지금은 동네에서 일, 이등을 다투는 상군 해녀에게도 초라한 ‘초보 해녀’ 시절이 있었구나. 선배 해녀들의 자매애에 힘입어 그 시절을 넘겼구나. 그 이야기를 듣자니 마감 시간이 되도록 기사를 끝내지 못해 머리가 새하얗게 텅 비면서 피가 바짝바짝 마르던 ‘초짜 기자’ 시절이 생각났다. 그때 내게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준 누군가가 있었던 기억이 그제야 떠올랐다.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는, 예전의 나보다도 더 치열한 전선에서 복무하는 후배 수선이에게는 영남씨의 얘기가 더 큰 울림을 주었던 모양이다. 그녀는 서울로 올라간 뒤 자기 블로그에 그날의 만남에 대해 긴 글을 올렸고, 그 글에 대해 수많은 방문자들이 ‘좋아요’를 눌렀다. 해녀들의 ‘자매애’가 동료들끼리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을 안긴 것이다.

“듣다가 눈물이 팽 돌았다. 해녀님도 말씀하시다가 감정이 북받치시는지 살짝 눈물을 글썽했다. 강한 자매애를 지닌 해녀들은 서로 돕는다고 한다. 신참이나 할망 해녀들이 못 잡으면 동료들이 하나씩 나눠줘서 망사리를 가득 채워준다고…… 신참이나 물눈이 어두운 해녀들이

건질 거 없는 데서 버벅거리면 많이 잡히는 데를 알려주고 물살 잔잔하고 안전한 곳은 할망들에게 양보한다고 한다.(중략) 아, 듣는 내내 감동, 탄복, 경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럽고 쪽팔렸다. 모두가 자기 밥통 지키기에 급급한 이 매물찬 세상에서, 잘되면 내 덕, 못되면 남 탓인 이 비열한 세상에서, 나보다 잘난 후배가 있으면 싹수를 잘라버리는 이 야비한 세상에서, 멸종 위기의 해녀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가면서 돕고 있는 것이다.” - 성수선의 블로그에서

초짜 해녀들을 돕는 자매애는 고참 해녀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할망바당’에서 더 여실하게 나타난다. 왕년에 펄펄 날면서 동네방네 소문났던 ‘상군 해녀’도 나이가 들고 숨이 차면 점점 작업 시간이 줄어들고 갈수록 깊은 바닷속에서 물질하기가 버거워진다. 자연스럽게 딸이나 손녀뻘의 젊은 해녀들에게 밀리기 마련이다.

그런 나이든 해녀들을 위해 해녀 스스로 만든 노후보장책이 ‘할망바당’이다. 수심이 얕지만 여(바위)가 발달해서 해산물이 풍성한 바당 발을 지정해 나이든 해녀들만 작업하도록 하는 제도다. 목숨을 거는 직업,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하는 직종에서 힘이 덜 들고 수확은 좋은 구역을 제 발로 양보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인간들이 종종 잊어버리는 엄연하고도 단순한 진리를 해녀들은 잊지 않았다. 자신들도 언젠가는 늙어가리라는 것을!

…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의 정수精髓!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젊은이와 늙은이도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걸 해녀들은 알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라도는 어업이 아닌 장사가 대세가 되었고 물질하는 할망들도 사라지면서 ‘할망바당’은 시나브로 사라져갔다.

그러나 아직도 물질하는 해녀들이 많은 인근 가파도는 ‘할망바당’이 건재하다. 몇 해 전부터 도입된 가파도의 ‘할망바당’제도는 마라도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 당장 채취하기에는 너무 작은 소라를 수고해 수십 4-5미터의 인근 바다에 뿌린 뒤, 나이든 할망들만 작업할 수 있도록 못 박았다. 단, 할망들이라도 10센티미터 이상 자란 소라만 캐고 판매할 수 있다. 나이든 해녀를 보호하는 미풍양속과 ‘기르는 어업’이 결합된 신식 ‘할망바당’인 셈이다.

자기 자신과는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도 동료 선후배끼리는 끈끈한 자매애를 발휘하는 해녀 사회! 이 얼마나 인간적인 공동체인가.

- 서명숙, 「숨, 나와 마주 서는 순간」(북하우스) 중에서